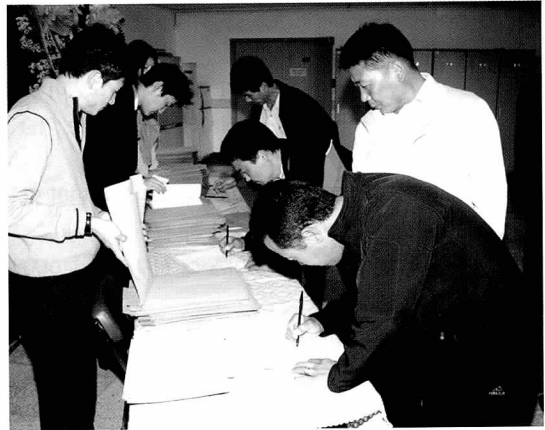


“육우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미나” 성료

한 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1월 3일(금) 한경대학교 축산기술지원센터(경기 안성시 소재)에서 육우농가 및 관련업계에서 참석한 가운데 “육우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육우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 앞서 협회 이승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국 산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FTA 협상 등 급변하는 국제시장질서 속에서, 이번 세미나가 우리 육우산업과 국내쇠고기 산업을 지키기 위한 육우산업 경쟁력제고 대책 방안에 대해 다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 라기혁 육우분과위원장은 안전성이 결여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강하게 성토힌하면서, 하루빨리 육우 부문에 대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전체 국내쇠고기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충남대 박종수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첫 번째로 '일본육우산업의 현황과 우리의 과제'의 주제로 강연한 한경대 장경만 교수는 일본육우산업의 현황에 대해 일본의 육우산업은 일찍부터 중등육과 대중육으로 소비가 정착되어 있으며,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의 조기 정착으로 안전한 국내산쇠고기와 수입육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일본정부에서는 육우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5년 단위의 낙농육우 자급률 목표 설정과 관세긴급조정조치 등 강력한 국경보호정책, 평균가족노동비 보전을 위한 기금 조성, 외식산업 국산쇠고기 수요 확대, 육우비육단지 조성예약사업 등 육우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히고,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의 전문적인 육우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수입쇠고기와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함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육우전문브랜드·유통망 강화방안'의 주제 발표를 맡은 한성일 교수는 한우브랜드의 시사점을 짚어 보고, 국내육우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육우 특성에 맞는 차별화 및 전문브랜드화 전략과 더불어 육우농가 스스로의 적극적인 발전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구매 결정권자임을 인식하고, 국내산 쇠고기로서의 안전성과 고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특화하여 집중적인 대소비자 홍보를 통해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통한 생존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육우농가 경영안정방안'을 발표한 김완영 교수는 국내산육우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장기비육과 거세를 통한 품질고급화, 자급사료 생산을 통한 경영비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품질고급장려금 제도의 유지·보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육우브랜드 경영체 지원, 육우 생산 안정사업(가격보험제도), 송아지생산 지원사업, 유통업체 육우전용 판매사업 지원 등 중장기 육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국내육우산업의 유지·발전과 국내쇠고기시장의 보호를 위해 지난 2004년 "육우부문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보다 폭넓은 의견과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육우산업 경쟁력제고 대책" 수립에 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1. 인사말을 하고 있는 협회 라기혁 육우분과위원장 2. 인사말을 하고 있는 협회 이승호 회장 3. 주제발표자와 육우농가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4. 좌장을 맡은 충남대 박종수 교수 5. 제1주제를 발표한 한경대 장경만 교수 6. 제3주제를 발표한 한국농업대 김완영 교수